



##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환영과 축복	사역과 소식 (교회/교우)
하나님 앞으로	찬양과 경배 / 찬양팀과 함께 예배기도 / 최선윤 집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말씀과 결단	성경말씀 민수기 9:1-14 (구약 209쪽) “새로운 기회”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 찬송 / 찬송 304장 (통일찬송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결단의 기도
헌신과 열매 (봉헌/나눔)	봉헌 구민 / 구은강 집사 ★봉헌찬송 / 213장, 4절 (통일찬송 348장) “나의 생명 드리니”
세상과 삶으로	★찬양 / “주께 가오니” ★축복기도 / 김성배 목사

★ 표는 모두 일어섭니다.

예배시간 10분 전 휴대전화를 끄고, 묵상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 금요 찬양 예배

찬양과 기도 / 샬롬 장로교회와 함께

성경: 사무엘상 28:1-11, 31:1-6

묵상제목: 혼자 힘으로 안 될 때.

### 기도를 송두리째 바꾸어 주셨다!

누구나 위기의 때에 자기에게 익숙한 것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돈이 익숙한 사람은 돈을 찾고, 사람이 익숙한 사람은 사람을 찾습니다. 위기에 부딪히고 보니 기도는 익숙한 저의 환경이었을 뿐, 실제로 제게 익숙한 것은 기도가 아니라 ‘걱정과 두려움’이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처럼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기도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자기 문제만을 기도하다가 점차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 기도의 문제는 나를 중심으로, 나와 연관된 일들로 확장되는 기도라는 점입니다.

동심원의 중심은 항상 ‘나’입니다. 기도를 이끄는 동력이 ‘나’이기 때문에 나와 관계가 없거나 나와 관계가 끊어지면 자연스럽게 기도도 힘을 잃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 계시니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아들이 군대에 가 있으니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제대하면 나라를 위한 기도도 잊어버리게 되고, 우리 교회 선교사가 없는 나라의 기도도 안 하게 됩니다.

내 문제를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조차 초점이 ‘나’인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기도하는 순서가 아니라 기도를 이끌고 있는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입니다. 나로 인해서 시작되는 기도, 즉 동심원의 중심이 ‘내가’ 되는 기도의 문제는, 문제가 생기면 다급하게 기도하다가 문제가 없으면 느긋해지다가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와 ‘기도’가 다르니까? 나를 위한 기도는 그냥 기도이고 남을 위한 기도는 중보기도입니까? 중보기도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인 것 같고 교회를 위한 기도 같아 보여도 다 나와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토록 간절했던 것입니다.

교회와 주님의 일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는 교회 성장과 목회 성공을 원하는 내 안의 욕망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기도가 주님도 기뻐하시는 중보기도일 거라고 스스로 속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누가 있는지를 정직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박 리부가, 『기도를 송두리째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성경은 많게는 600여개, 구체적으로 100개의 메시아 관련 예언들을 제시한다. 메시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의미를 갖는 역사적인 사건들이다. 구약성경은 이에 관해 명확하게 예언했다.

4. 예수님은 높이 매달리셨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영생을 얻는다. 민수기 21:9 “모세가 뚝뚝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뚝뚝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요한복음 3:14-18

5. 예수님의 부활은 예언되었다. 욥기 19:23-27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낫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요한복음 5:24-29

6.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으셨다. 시편 22:1 “내 하나님이며 내 하나님이며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마태복음 27:46

7.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셨다. 시편 22:8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견지실 걸 하나이다.” 마태복음 27:42-43

8. 고난 중 예수님은 갈증을 호소하셨다. 시편 22:15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요한복음 19:28

9. 예수님은 손과 발을 못에 찔리셨다. 시편 22:16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요한복음 19:35-37

섬김의 교회를 방문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후, 점심찬교를 통해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 교회소식 3월 부활의 달 / 부활의 능력, 치유와 회복

1. 성장과 성숙 주간 믿음성장과 신앙성숙으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섬김, 소망의 인내로 치유, 회복과 나눔의 증인이 됩니다.
2. Daylight Saving Time이 시작되었습니다. 지혜롭고 충성스런 건강과 시간의 청지기가 됩니다.
3. Oikos 모임 말씀과 기도, 교제와 나눔으로 서로를 새우는 모임을 다음 주일(17) 김훈태/신실 집사 가정에서 모입니다.
4. 사순절 새벽집회가 교회와 Zoom으로 계속됩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고난, 그리고 부활을 묵상합니다.
4. 성경읽기운동 성경 일독 운동이 계속됩니다. 더욱 힘냅시다.
5. 중보기도 매일 낮 12시, 저녁 9시 다 함께 기도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주보의 기도 제목을 참고해 주십시오.
6. 나눔과 교제 주일 점심 친교 후, 다 함께 교제합니다. (3:00-4:00pm)
7. 예배 생명력 있는 예배를 위해 전심을 다 합시다. 금주 금요 찬양예배는 살롬장로교회와 함께 합니다.

### 교우소식

생일축하 김성배(2) 김윤경(11) 유명원(17)

### 3월 사역

사순절(2/14-3/28) 성장/성숙 주간(10-16) 사역친교(교육/선교/재정, Oikos 모임, 17) 소금/빛 주간(17-23) 종려주일(24) 고난주간(24-30) 부활주일(31)

한 주간의 말씀 마태복음 6:33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불가피한 부정으로 유월절을 누릴 수 없는 자들을 위해 모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질 때, 은혜의 때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그 앞으로 나가야 한다. 그런 자를 기다리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만나 주시며,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에게 특별히 대우하신다. 그러니,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자.

말씀요약

시내광야에서 이스라엘은 규례와 율례를 따랐 지켰다. 1월 14일에 준비 된 양을 죽여 구워먹었다. 심판의 천사가 양의 피가 칠해진 집을 심판하지 않고 건너감을 기념하는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음과 그 은혜를 예표한다.

그러나, 시체를 접촉하고 불결하게 되어, 이 은혜에 참여할 수 없던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축복에 참여할 수 없던 사람들이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이 되는 과정에 교훈이 있다. 규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죄인들)이 ‘하나님을 찾아 왔고,’ ‘하나님의 종이 그들의 중재자가 되었다.’ 은혜에서 예외 되었던 사람들이 은혜에 참여하는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 “둘째 달 열넷째 날 해 질 때에 그것[유월절]을 지켜서 어린 양에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기회의 문을 닫고 한해를 기다리게 만들지 않으셨다. 회복의 문을 한달 뒤에 열어 주셨다. 유월절을 지킬 수 없던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

이처럼 하나님은 때로 예외를 허락하시는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분이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사야(55:6-7)

이제 어떤 어려움과 예외적인 상황, 예상치 않은 인생길을 두려워하거나 분노할 필요가 없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길을 열어 주시기 때문이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자.

1. 성장과 열매: 2024년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 공동체의 사역들이 열매를 맺도록
2. 영성: 삶 속에서 말씀묵상과 기도로 영성 훈련하도록
3. 복음전파: 우리 삶 속에 복음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도록
4. 가족: 연로하신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5. 교육사역: 자녀들의 영적성장과 Youth Ministry를 위해
6. Oikos 가정사역을 통해 회복과 전도의 은혜를 누리도록
7. 선교지들과 선교사들을 위하여: 네팔/뉴욕(박은주 선교사)
8. 이웃 교회들과 연합사역을 위해

선교 (네팔/뉴욕, 박은주 선교사)

1.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들이 성령님 안에서 참된 성도의 교제를 갖도록
2. 새해의 사역들을 위해 (후원과 충성)
3. 건강을 위해 (가족들, 부모님의 구원)

예배 섬김이

주일 기도 인도	3월 3일	구은강	집사
	10일	최선윤	집사
	17일	구민	집사
	24일	최내권	집사

주일 봉헌 인도	3월 3일	최선윤/구민	집사
	10일	구민/구은강	집사
	17일	구은강/박진성	집사
	24일	오정은/박진성	집사

주일 예배 안내	3월	최내권	집사
----------	----	-----	----

섬기는 사역자들

지도목회자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교육전도사 (Youth Minister) Jacob Kim 전도사  
 찬양인도자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